

# 민속조사를 통해 본 인천지역의 의생활( I ) - 통과의례복식 중심 -

장 인 우  
인천대학교 패션산업학과 부교수

## Ethnographies of Clothing in Incheon Province( I ) - Focus on passage ritual clothes -

In-Woo Chang  
Associate Prof, Dept. of Fashion & Industry, Incheon University  
(2005. 7. 18. 접수; 8. 1. 채택)

### Abstract

This ethnography is on the passage ritual clothes in Incheon province. This ethnography invatigates in two villages of people who has same family name -Family 'Cheung'(from Young-il) in Yeonsoo-dong and Family 'Lee'(from Cheun-joo) in dongyang-dong- in August to December 2003. The object of examination is 80's and 70's old women who have lived and had lived up to recent in two villages. (grand mother Sung, Cho, Cheung and yoon)

The clothes of passage ritual are Baenaehoht is the first clothes of the newborn baby(swaddling), A wedding ceremony clothe is the clothing for the coming-of-age ceremony, Honryebouk is the clothing for wedding, Sangbouk in the clothing for mourning, shroud is the clothing for the dead, sacrificial robes. The result of ethnogrphy is the passage ritual clothes in Incheon Province similar with other Provinces in aspect of the name and the form and wearing of the clothes. there are remarkable differences in making method from making by oneself to purchase(swaddling · shroud), westernize(clothes for wedding and mourning), simplification (sacrificial) between ritual for their parents and their husband and children.

**Key Words:** Passage ritual clothes(통과의례복식), Baenaehoht / swaddling(배내옷),  
wedding clothes(혼례복), shroud(수의), hes(제복)

### I. 서 언

과거의 전통생활인 민속은 오늘날 일상생활의

현대화 · 도시화를 통하여 급속히 사라졌으며 이에 따라 전통생활의 체험자 역시 그 수가 점차 감소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전국적으로 지역민속조사<sup>1)</sup>가 시행되었으나 인천은 지리적으로 내지 · 해안 · 도서<sup>2)</sup>로 이루어져 지역별 고유민속이 다양할 것으로 추측됨에도 불구하고 전국민

속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지역의 전통 의생활을 하였던 노인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인천지역의 의생활 민속을 살펴보고자 한다. 집성촌이란 특정 성씨들이 이룬 전통마을로서 과거 씨족사회의 한 산물이다. 이러한 전통마을인 집성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들 보다 전통방식으로 생활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본 연구는 집성촌을 중심으로 시행하고자 하였다. 지역개발에 의하여 현재는 거의 사라져 가고 있는 인천의 집성촌 가운데 영일정씨의 집성촌이었던 연수동과 전주이씨의 집성촌이었던 동양동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거나 최근까지 거주한 영일 정씨와 전주이씨의 종부 혹은 바느질생활의 경험이 많은 4명의 할머니들을 각 문층으로부터 추천받아 개인별로 2003년 8월부터 11월에 각 1회에서 2회씩 면담하였다. 면담은 배냇옷 · 관례복(冠禮服) · 혼례복(婚禮服) · 제복(祭服) · 수의(壽衣) · 상복(喪服)의 통과의례복식(通過儀禮服飾)을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착용과 미착용, 의례복의 종류와 형태 및 특징 그리고 이러한 의복에 대한 구전 및 속담과 고유한 의생활 어휘 등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내용을 의복별 그리고 조사 할머니별로 정리하여 각 할머니들의 나이에 따른 의생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면담내용은 피조사자들의 사용하는 어휘를 사용하고 표준어를 괄호안에 표기하였다.

## II. 조사 집성촌과 피조사자 배경

의식주란 우리의 일상생활의 전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의생활 민속을 살피기에 앞서 피조사자들의 식생활과 주생활을 살피고, 전통 의생활과의 관계를 통하여 의식주변화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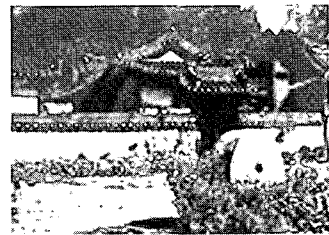
### 1. 연수동의 영일 정씨가(영일 정씨)

영일정씨의 집성촌은 연수동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연수동 개발이후 거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상태이며 일부 가구들만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 연수동에는 영일정씨의 종중의 무

덤이 있어 매년(10월3일-5일) 시제를 지냄으로써 연수동이 영일정씨가문의 집성촌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영일정씨의 종가는 인천시내 승인동에 거주하는 정구열씨택이나 종부가 너무 고령이며 병중에 있어 본 조사에서는 아직 연수동에서 생활하고 있는 고 정구창옹택의 성희용할머니를 조사하였다.

#### 1) 성희용할머니(2003/83세, 연수동)

성희용할머니는 남편 고 정구창옹과 소화12년(1937)에 신부 20세, 신랑 22세에 결혼하여, 슬하에 3남5녀를 둔 다복한 할머니이다. 결혼 후 공무원이었던 남편 고 정구창옹과 자녀들의 교육 등으로 시부모를 모시지 않고 인천시내에서 거주하였으나, 정구창옹의 은퇴이후부터 오늘까지 60여년을 시부모님이 사시던 현재의 고택에서 거주하면서 전통생활을 하고 있다<그림1>. 성희용할머니의 기억에 의하면 현재의 고택은 시고조할머니까지는 사셨던 것으로 약150년이상 조상 대대로 살았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은 12년 전 그



<그림1> 연수동 성희용할머니 택 전경



<그림2> 광에 모신 엇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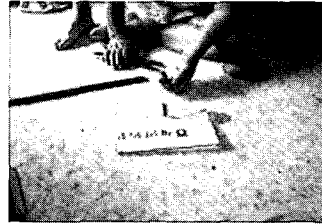
린벨트가 폴립에 따라 전형적인「ㄷ」자형주택<그림1>의 예전 모습 그대로 보수하였다고 한다. 현재 할머니는 집 앞의 텃밭을 일구어 채소와 깨·콩 등의 곡식농사를 짓고 있으며, 광에는 터주신인 「업가리」를 짚으로 만들어 모시고 있었다<그림2>. 업가리는 「대지업(大地業)」 즉 땅으로부터 복이 들어오라는 의미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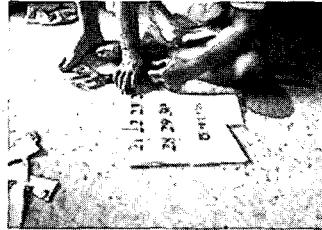
<그림4> 배내옷의 재단 1

## 2. 동양동의 전주 이씨가(全州 李氏家)

전주이씨의 집성촌은 부천시 계양구 동양동에 위치하며 대부분은 세종과 성종의 후손들이다. 동양동은 현재 개발지구로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주한 상태이지만 세종의 후손인 조남순 할머니와 성종의 후손인 윤하할머니는 아직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정용희할머니는 최근까지 살다가 계양동으로 이주하였다. 정용희할머니댁은 성종의 후궁인 숙의 홍씨의 경명군의 후손으로 시제사는 10월 21일이었으나 현재는 10월 첫째 혹은 둘째 일요일로 날자보다는 요일에 맞춰 많은 후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융통성있게 정한다고 한다. 조선초중기부터 이곳에서 살았던 전주이씨의 문중묘는 현재 의정부 지역으로 이장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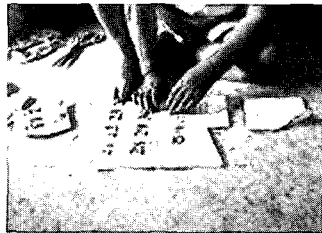
<그림5> 배내옷 재단 2



<그림6> 배내옷 재단 3

### 1) 조남순 할머니(2003/85세,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294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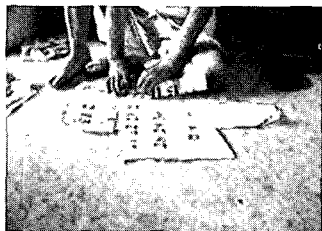
조남순할머니는 친정은 서울 등촌동이었으며, 14세부터 바느질을 시작하여, 17세에 부군 이철홍옹과 결혼하였다<그림3>. 조남순할머니의 집은 전형적인 「ㄷ」자형 기와집이다. 할머니는 직업적으로 바느질을 하시던 분은 아니었지만 2003년 조사자가 직접 면담할 당시에 배내옷과 두렁치 ...기타 의복들을 자 하나만 갖고 재단할 수 있을 정도로 바느질이 손에 익어 있었다<그림4,5,6,7,8>.



<그림7> 배내옷 재단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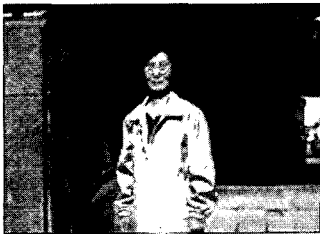
<그림3> 조남순 할머니(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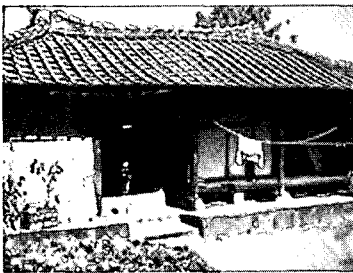
<그림8> 배내옷재단5

## 2) 윤하할머니(2003/71세, 계양구 동양동)

윤하할머니는<그림9> 친정 인천시 서구 새오계(신영동/파평윤씨 집성촌)에서 출생하여 20살에 동양동 현 주택(전주이씨댁)에 시집와 오늘날까지 살고 있다<그림10>. 주택은 전형적인「ㄷ」자형이며, 할머니가 기억하기로는 적어도 시조부모 이상이 사셨던 것으로 적어도 150년이상 거주하고 있으나 머지않아 동양동 택지개발사업으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시내 아파트로 이사 나올 것이라 한다.



<그림9> 윤하할머니



<그림10> 동양동 윤하할머니댁 전경

윤하할머니의 남편은 을(2003년) 2월에 돌아가신 고 이석구옹으로 공무원이었으며, 은퇴 후 향교에서 일을 보시고 특히 동양동의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계셨던 향토사학자이셨다고 한다(연수고등학교 김석훈박사 증언). 이러한 윤하할머니댁에서는 시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적에는 12반상의 제사를 지내셨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인 고 이석구옹이 돌아가신 현재는 1년에 7반상의 제사만을 지낸다고 한다. 윤하할머니는 슬하에 3남을 두었으며, 현재 장남내외와 살고 있으며, 다른 아들들은 계산동과 부평에 살고 있다.

## 3) 정용희할머니(2003/71, 계양구 계양동 삼환아파트 102동 502호)

정용희할머니(20세)는 1951년 남편 이동훈할아버지(20세)와 결혼하였다. 현재는 계양구 계양동 삼환아파트(102동 502호)에서 부부만이 살고 있다<그림11>. 그러나 이동훈할아버지는 외가인 송림동에서 출생하여 6.25이후에 현재의 동양동으로 옮겼으며, 1994년에 현재의 주거지로 이주하였다. 정용희할머니 역시 젊었을 때 바느질을 많이 하였으며 아이들의 옷들을 대부분 손수 지어 입혔고, 특히 외출이 잦은 시아버지의 외출복 후루메를 깨끗이 세탁하는 것이 가장 큰 일로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무명후루메를 풀먹이고 다듬어질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그림11> 정용희할머니 내외

이와 같이 1명을 제외한 모든 피조사자들이 현재 조상대대로 거주하여온 고가옥에서 전통주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식생활 역시 직접 농사를 통한 곡식으로 자급할 뿐 아니라 된장 고추장과 같은 장을 각 집안의 맛을 통하여 전통식생활을 생활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생활은 현대의상을 착용함으로써 전통의상을 착용하고 있지 않았지만 각 젊었을 때 가족들의 옷을 전통의상으로 제작하고 세탁 그리고 푸세에 이르기까지 생활화하였다고 한다. “엿가리” 등과 같은 전통 민간신앙을 아직도 생활화하고 있었다.

## Ⅲ. 민속조사에 나타난 통과의례복식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통과의례에 착용하는 복식별- 배내옷·관례복(冠禮服)·혼례복(婚禮服)·상복(喪服)·수의(壽衣)-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배내옷

### 1) 성희용할머니

성희용할머니는 “배넛저고리”라 하였으며, 시어미니께서 직접 제작하여주셨다고 한다. 배넛저고리의 재질은 무명(옥양목)으로 새것을 사용하여 2벌을 만들었다. 이러한 배넛저고리는 약2주일 동안 착용시켰으며, 그 후에는 잘 보관하였다가 다음 동생에게 물려주어 형제들끼리 물려 입혀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았다. 성희용할머니는 8남매를 키우는데 2벌의 배넛저고리만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배넛저고리의 착용은 생후3일부터 2주일까지 입혔으며, 생후3일 이전에는 아기를 전(氈) 혹은 융(絨)으로 꼭 싸 놓았다. 이때 아기의 팔과 손을 꼭 싸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는 아기가 엄마의 뱃속(자궁안)에서의 자세와 같이 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에서 허전함을 느끼지 말라는 의미라 한다. 또한 배넛저고리를 입은 신생아의 경우도 저고리의 소매에서 팔이 빠져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매의 윗부분(상완)을 실로 묶어 팔을 소매 속에 고정시켰다고 한다.

배넛저고리의 형태는 깃이 없으며 2점으로 제작하였으며, 실은 무명실을 사용하였으나 누빔과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 배넛저고리의 고름은 무명실을 여러 가닥 연결하여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게 하여 달았다고 한다. 고름에 실을 사용하는 것은 실과 같이 생명이 길게 연장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였다고 한다. 그 방법으로는 틀 기계미싱(재봉틀)이 있는 사람은 틀로, 틀이 없는 사람은 손으로 각기의 사정에 따라 제작하였다고 한다.

### 2) 조남순 할머니

조남순 할머니는 “배내옷” 혹은 “눈도 없고 코도 없는 옷”이라하였다. 여기서 눈과 코가 없는 옷은 깃과 섶이 없는 옷이기 때문이라 한다. 배내옷은 임신 아홉달쯤에서 본인이 직접 제작하였다. 배내옷은 무명이나 융 2점으로 제작하였으며, 고름은 실고름을 달았으며, 여러 올의 무명실을 실꼭지 길이로 하였다<그림12>. 고름을 실로하는 까닭은 생명을 길게 하기 위하여서라 한다. 이러한 실고름은 하나로 이어져 짧은 고름이 왼쪽 길에 고정되며 긴 고름은 가슴을 한바퀴 돌고 짧은 고름과 고름

매도록 하였다. 조남순할머니는 자녀들의 배내옷은 물론 손주들의 것까지 직접 지었다고 한다.

배내옷의 착용은 출생후 강보에 약3일 동안 싸두었다가 목욕시킨 후 입히며 약3달 후까지 착용시켰다. 태어나면 태를 가르고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바지에 싸 돌돌 말아 끈으로 꼭 붙들어 매며 이후 3일 동안 목욕을 시킨다. 싸두는 것은 자른 태를 보호하기<그림12> 실꼭지 길이 위함이라한다.

강보에 싸 아이는 1주일까지 양팔을 꼭꼭 매어 두고, 한이레(7일)이 지나면 한 팔을 내고, 다시 한이레(7일)이 지나면 한 팔을 내놓는다. 이때 왼손을 먼저 내놓으면 아기가 커서 왼손잡이가 되고, 오른손을 내놓으면 오른손잡이가 된다고 한다.



<그림12> 정용희할머니 내외

아기가 이때 죽을 경우는 새 옷을 다시 지어서 엮을 한다고 한다. 혹은 아기가 정상적으로 크게 되면 섶을 달아 입히기도 하고, 보관하여 동생에게 물려주기도 하였다. 이때 섶은 안섶은 작고, 겹섶은 넓게 하고 안섶은 어긋하게 단다. 이는 오늘날 저고리 섶달기와도 일치한다. 이후 3달 후 백일이 오면 깃과 섶이 달린 옷(백일에야 눈과 코가 달린 옷)을 입힌다고 한다.

갓태어난 아기에게 상의에는 배넛저고리를 입히고 하의에는 두렁치를 입힌다. 두렁치는 허리에 주름을 약3개정도 잡은 치마이며 남녀모두 입힌다. 그러나 3·7일(21)일이 지나면 남자는 개구멍바지를 입히고 여자는 풍차바지를 입힌다. 이로써 3·7일이 지나면 남녀의 성구별을 시작한다. 개구멍바지만 사폭이 없는 바지에 남자성기부위에 앞뒤로 반원형의 구멍을 낸 바지로 배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한 바지이다. 이 개구멍으로 할머니말씀이 「불알·자지」가 나오는 구멍이라 한다. 여아

의 경우는 밑 부분에 무를 대었는데 이를 「풍차」라 하였으며, 이는 무로 덮지만 덮지 말라는 의미이며 동시에 여아의 성기 즉 /보지짜을 보이지 말라고/를 덮게를 하였다고 한다.

배냇저고리를 입시나 취직시험 시 허리에 두르고 가면 합격한다고 하여 내리내리 입히셨다고 한다.

### 3) 정윙희할머니

아기가 태어나 입는 첫옷을 “배냇저고리”라 불렀으며, 배내옷의 형태는 깃과 셔이 없는 저고리 형태이며, 고름은 「끈으로 만들어 입혔다」고 한다. 또한 배내옷은 출생 시부터 100일까지 입혔던 것으로 기억하였다. 배내옷을 입히기 전에 보자기 등에 싸둔다는 말은 들었지만 출산하자마자 바로 배내옷을 입혔다고 한다. 할머니의 경우 첫아이의 배내옷은 시어머니(당시 60세 전후이셨던)께서 만들어 주셨으며, 두꺼운 용 홀으로 제작하였다고 한다. 홀겹의 배내옷은 솔기를 밖(외향)으로 바느질하였다고 한다. 배내옷 위에 하의로 치마같이 형태 두렁...(정확히 이름의 끝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함)라 하는 배가리계 같은 옷을 배내옷 위에 치마에 둘러 입혔다고 한다.(조남순 할머니의 두렁치라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저고리 위로 입혔다고 한다) 그 외의 것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 4) 윤할머니

윤하 할머니댁에서는 아기의 첫옷을 “배내옷” “배냇저고리”라 불렀으며, 윤할머니의 첫아들의 배내옷은 시어머니께서 산달에 이르러 손수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 대개 배내옷은 3벌 정도를 갖고 입혔는데 첫아들의 첫 배내옷 이외는 할머니가 직접 지어 입혔다고 한다.

배내옷의 착용은 태어나면 신생아를 씻기고 나서 배냇저고리를 입히고 수건으로 돌돌 감아 포대기에 싸놓았다고 한다. 이는 엄마의 뱃속과 같은 자세로 꼭 싸 허전함을 느끼지 말라는 의미였다고 한다. 3일이 지나면 기저귀를 채우고 앞치마(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를 길게 하여 발까지 닿게 하여 앞에만 입혔다고 한다. 배내옷은 백일까지 매일 갈아 입혔으며, 첫아들의 것을 두었다가 둘째 아들과 막내아들까지 입혔으며, 입히다 해진 것은 깨끗이 빨아 불에 태웠다고 한다.

배냇저고리의 형태는 저고리의 형식을 따랐으며, 앞의 조사자들과는 달리 「깃을 조붓하게 작게, 셔도 작게 즉 깃은 손가락 한마디만큼 크기로 달았다. 또 고름은 실고름으로 하였으며, 이는 명이 길라는 의미라고 한다. 이 실고름은 손가락 굵기 정도로 하였으며, 사람에게 따라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실 한 타래를 다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고름은 2개를 달았으며, 작은 고름은 오른쪽 길에 달고 긴 고름은 왼쪽 길에 달았으며, 긴 고름은 아기의 가슴을 한번 돌리고 고름 맨 정도였으며, 깃의 끝에다 달았다고 한다. 특히 이댁의 배내옷은 용 2겹으로 만들었으며, 뒤 중심선을 박아서 하였다고 한다.

둘째 아들의 경우는 시험보러 갈 때 옷옷의 등에서 여기에 배내옷을 판판하게 넣고 꿰매어 시험장에 보냈다고 한다. 그 결과 걱정하였던 아들이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배내옷이 행운의 옷이라는 이야기는 옛날어른들로부터 들었으며, 그 만큼 이 배내옷을 소중히 간수하라고 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윤할머니는 몇 해 전까지도 아들들의 배내옷은 보관하였으나 손자들의 배내옷은 사서 입혔다고 한다.

## 2. 관례복

관례복은 조사대상자 모두 본인은 물론 그들의 자녀의 경우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혼례복

### 1) 성윙희할머니

성윙희할머니는 결혼 시 신랑은 두루마기·바지·저고리·나까오리(중절모)를 쓰고 말을 타고 신부댁에 왔으며, 신부댁 초례청에서 신랑은 관복·사모·저고리·바지를 입고, 신부는 족두리·원삼·저고리·치마·앞댕기(금박이 박힌)·큰댕기(도투락댕기인 것 같음)를 하였다고 한다. 당시 사진을 찍지 않아 사진을 갖고 있지 않았다. 신부집에서 착용한 이러한 혼례복차림은 신랑댁으로 오면서 친정에 모두 벗어 놓고 오고 신랑댁에서는 시어머니가 마련한 족두리·원삼·저고리·치마·앞댕기(큰댕기) 즉 관례매김을 새로 입고 신부상을 받았다고 한다. 혼례복은 혼례가 끝난 후에는 색상자에

넣어 건넌방 장롱위에 올려서 보관하였다고 한다.

할머님은 봄 음력3월11일에 결혼하였으며, 이때 속적삼과 노랑저고리를 입었는데 속적삼은 빨강색 속고사로 만들었다. 잠잘 때는 이 빨강색 속적삼만 입고 잤다. 이는 신랑에게 이쁘게 보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외 속치마와 고쟁이(인조)를 착용하였다. 함에는 혼서지와 청실홍실만 넣고 오늘 날같이 옷감은 넣지 않았다고 한다.

#### 2) 조남순할머니

할머니는 혼례 시 치마·저고리를 입고 족두리를 썼으며, 할아버지는 관복에 사모를 썼다. 할머니는 저고리 속에 흰색인조로 만든 적삼을 입었으며, 하의에는 다리속곳과 가랑바지를 입었다. 가랑바지란 밀이 터진 바지를 말한다. 바지의 뒤에만 풍차를 단다. 여기서 풍차란 밀을 의미한다. 앞뒤에 놓여진 무는 사각형의 천을 2겹으로 접어 어긋하게 재단하여 넓은 쪽이 밀의 아랫부분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따라서 한쪽은 굵고 구성되고 다른 한쪽은 2장으로 재단하여 밑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트임은 뒤쪽으로 두었다.

#### 3) 윤하할머니

윤하할머니는 결혼 시 할아버지는 사모관대(관복)·명주바지 저고리, 할머니는 노란저고리에 빨강치마를 착용하였으며 친정어머니로부터 빨강치마감과 비로도치마감을 받았다고 한다. 아들 둘은 모두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시켰으며 할머니도 양식결혼식(면사포)를 하였다고 한다. 윤하할머니 경우 결혼 시 친정에서 오래 입으라고 치마·저고리·버선을 각 20벌씩 해주었다고 한다.

#### 4) 정유희할머니

정유희할머니의 경우는 혼례 시 남편은 사모관대를 하고 할머니는 족두리·원삼을 입고하였으며 할아버지는 「쓰리코타」라는 자동차를 타고 장가가고 할머니는 가마 타고 결혼하였다. 다복하고 아들이 많으며 지체가 낮은 사람을 함진애비로 하였으며 이때 노자를 주어서 썼다고 한다. 아마도 이 노자돈이 오늘날 함값에 해당된다고 본다. 신랑의 사모관대는 동네에 빌려주는 곳에서 빌렸으며 시중드는 사람이 옷을 입혀주었다고 한다.

### 4. 제 복(祭服)

#### 1) 성유희할머니

성유희할머니택에서는 제사 때 두루마기를 사용하고 중손만 도포와 두건을 착용한다. 반면 시제 때는 1993년에 구입한 제복(30)을 착용하고 일반인은 양복을 착용한다. 제사 때 사용하는 도포는 베로 만들며 검은 베로 만들며, 소매는 「두리가 달렸다」 즉 두리소매임을 의미한다. 여자 가운데 맞상제는 두리가 달린 중단을 치마보다 짧게 입는다.

#### 2) 조남순할머니

제복은 도포·유건과 흰색행전을 착용하며 약 30벌을 보관하며 기제사는 아현(둘째잔)까지 이르며 종부는 깨끗한 평상시의 옷을 착용하며,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한다. 전주이씨의 큰제사에는 전국에서 600·700명에서 1000명까지 모인다고 한다.

#### 3) 윤하할머니

제사 시에는 남자들은 깨끗한 양복을 입되 유건만은 꼭 쓰도록 한다. 조부모 생전시에는 바지·저고리에 반드시 후루메를 입었으나 아들 때부터는 후루메를 입지 않는다고 한다.

### 5. 상 복

#### 1) 성유희할머니

성유희할머니택에서는 상복은 임종을 확인한 후 제작하기 시작하며, 이때 집안에서 친지들이 모여서 제작하는데 이때 /어른들은 마르고(재단)하고 젊은이들은 바느질/을 하는 등 일을 나누어 하였다고 한다. 상복의 재질은 삼베를 사용하며, 상복의 제작 시 바느질에는 매듭을 사용하고, 제작순서에는 특별한 의복종류에 관계없이 제작하였다. 반면 상복을 만들 때는 /입다물고 바느질하게 하였는데,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신 분이 벌떡 일어난다 / 또는 /시신 앞에서 부정한 이야기를 하면 시신에서 물이 흐른다/고 하여 상복제작시의 경건한 자세로 입할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바느질할 때,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경계의 뜻이라 한다.

상복의 착용은 /3년(대상)까지 착용하고 태워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나, 때로는 보관하여 사용할 경우도 있다. 이때는 반드시 친족끼리만 내려착용한다/고 한다. 또한 /남편이 돌아갔을 때 사용한 상복은 부인의 상복으로 착용할 수 있으나 부인의 상에 입었던 상복을 남편의 상에 입지 못한다/고 한다. 이는 아마도 상중의 아버지는 참최를 착용하는 반면 남편이 살아있는 부인의 상은 제최로서 그 격을 낮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본다.

## 2) 조남순할머니

조남순할머니댁에서는 현재 상복을 입되 맡아들만이 굴건과 제복을 착용하며, 상복은 상을 당한 후 동네 사람들이 모여 제작하였다고 한다. 공포(空布)에 선비나 유생의 성함을 써 내거는 만장을 기억하고 있었다.

## 3) 윤할머니

윤할머니 전에는 베를 끊어와 수의와 함께 만듦을 만든 옷들은 광주리에 싸놓는다. 줄곡(1년) 후에는 그 옷을 입고 산에 가서 성묘하고 그 후에는 초하루·보름·삭망에 성묘하고 3년 후에는 아버지의 것은 두었다가 어머니 상에 사용하지만 어머니의 상이 끝나면 노인이 돌아가신 경우는 복이 많은 노인의 것이라 해서 '밥상보·떡갈게·혹은 등걸이를 만들며 다른 사람들도 가져가 사용한다. 그러나 젊은이의 것은 3년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태워버린다. 상복은 2-3년간은 두었다 입지만 오랜 후에는 태워버린다. 후루메는 빨지 않고 남에게 주거나 태워버리고 건·행전·바지·저고리는 빨아서 입되 풀을 먹여 뽀뽀하게 사용한다.

## 4) 정용희할머니

상복으로는 굴건과 제복을 착용하였으며 상복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 명이 길어진다고 하여 옷을 특히 노동복이었던 반바지나 등걸이를 소매와 깃의 등걸이를 만들어 입었다. 상복은 운명하시면 동네 아낙들이 의복별로 나누어 만들었다고 한다. 이때 옷을 죽은 사람과 같이 생각하여 넘나들지 않는다고 한다. 여자들의 상복은 무명으로 만들었으며 깃미녕(누런미녕)으로 하였는데 이는 죄인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정용희할머니의 시아버님이 들

아가셨을 때 할아버지가 3년 동안 상복을 착용하였다고 한다. 미녕은 무명을 이르며 흔히 민가에서 사용됨을 볼 수 있다.

## 6. 수 의

### 1) 성용희할머니

죽은자의 초중으로 임종을 확인하면 죽은이(맹인)의 옷옷을 지붕으로 던지며, 시신은 가능하면 죽은 자리에서 옮기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방에 있다가도 죽음에 임박에서는 안방으로 옮겨 사망하도록 한다. 임종 후에는 향물로 목욕을 하고, 손발톱을 자른다. 맹인은 죽은 사람 즉 망인(亡人)을 이르며 수의를 맹인 옷이라고도 한다.

수의는 미리 제작하지 않고 돌아가신 후 제작하며, 혹 미리 제작할 때는 윤달이 들 때 준비한다. 수의의 재질은 삼베·명주·순인조를 사용하는데 그 가운데 명주는 잘 썩지 않는다하여 좋아하지 않고, 삼베를 선호하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순인조를 사용하는데 순인조도 비교적 잘 썩기 때문이라 한다.

수의의 종류는 이불·요·치마·저고리·속바지·속적삼·원삼...을 제작하는데 이때 원삼도 삼베로, 남자의 경우는 두루마기를 제작한다.

수의 제작 시에는 매듭을 짓지 않는다. 이는「매듭 맨 사람을 맹인이 매듭을 풀어달라고 성가시게 하기 때문이다」. 즉 이는 제작 시 정신 차려서 한 땀 한 땀 정성껏 만들라는 의미이다. 또한「뒷 바느질을 하지 않는데 이는 뒷사람에게 안 좋기 때문」이라 한다. 또한「수의는 돌아가신 분 앞에서 만들며 손님이 오시면 가까운 곳에서 제작한다」. 이는 맹인 앞에서 조심스럽게 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임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수의 제작 시에는 바느질 중간에 실을 이을 때 매듭을 짓지 않고 실 두 올을 꼬아서 하나로 연결하거나 혹은 실은 약 1-2cm정도 중복해서 바느질하여 매듭을 짓지 않는다. 또한 실을 처음 사용할 때도 매듭을 짓지 않고 고를 사용하여 시작한다. 수의는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은 큰옷(두루마기)를, 바느질을 못하는 사람을 작은 옷을 맡아서/하였다. 현재는 「명곡상회」에 수의를 제작 의뢰하여 준비한다.



2) 조남순 할머니

상이 나면 지붕에 올라가 중의(中衣)를 갖고 복을 하였다고 한다.

3) 윤하할머니

수의를 ‘맹인옷’ 이라하며 할머니의 시부모의 것은 만들어 사용하였으나 남편인 이석구옹이 2003년에 죽었을 때는 수의를 사서 사용하였다고 한다. 수의는 반드시 돌아가시고 나서 만들기 시작하며 수의옷감만은 샀을 주어서 사다두었다고 한다. 수의는 매듭을 짓지 않고 옥 매듭을 하여 풀고 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맹인 옷은 상복보다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이 만들었다.

4) 정용희할머니

수의를 집에서 동네사람들(일가사람들)이 돌아가신 후 만들었으며 베는 ‘상포계’ 를 통하여 상(喪)이 나면 상포계회장이 맹인(죽은자)과 장자의 상복 감을 마련하여 준다. 새마을 운동으로 상례가 약식으로 변화하였다. 객사한 사람은 헛간으로 모신다. 수의의 내용은 바지 · 저고리 · 버선 · 대님 · 두루마기 · 홀이불 · 오냥 · 악수 · 명목(눈가리개) 등이며 버드나무 순갈로 “천석 · 이천석 · 삼천석”이라 하면서 입에다 쌀을 넣는다.

IV. 통과례복식에 나타난 의생활 민속

조사 통과례복식은 피조사자의 자신의 경우와 그 자손의 경우에서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이는 시간에 따른 (의생활)민속변화로 해석된다. 통과례복식 가운데 의복별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배넛 옷의 경우 피조사자의 연령에 의해서 배넛 옷 구성에서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즉 현재 80세 이상인 조남순 · 성용희 할머니의 경우 배넛옷의 특징적 구성인 깃과 섶이 없고 실 고름의 전통 배넛옷의 특징적 구성이 지속된 반면 60 · 70대인 윤하 · 정용희할머니의 배넛옷에서는 조붓한 깃(윤하)과 끈 고름 그리고 실타래 굵기의 굵은 고름의 배넛옷으로 전통에서 벗어난 변화를 볼 수 있었다. 또 제작에 있어서도 피조사자들의 자식의 경우는 가족이나 친지가 직접 옷을 제작하던 것에서 조남

순할머니를 제외한 피조사자 모두 구매한 배넛옷을 손주에게 착용시켰다. 이러한 구입한 배넛옷의 사용은 다른 지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시대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다.

혼례복은 피조사자 모두 전통혼례복으로 여자는 원삼 혹은 치마와 저고리를, 남자는 사모관대(紗帽冠帶)의 전통복식을 착용한 반면 자식의 결혼에서는 웨딩드레스와 양복으로 서양복으로 변화하였다.

상복은 검정양복으로 서양의복으로 변화하였다.

제복의 경우는 시제의 경우 영일정씨가는 문중대표(약30명)는 구매한 제복을 착용하고 그 외는 깨끗한 검정 양복이나 유건만 사용하고 전주이씨가는 문중대표는 흰 도포와 유건(전주이씨가)을 사용하고 그 외의 후손은 유건 혹은 양복만을 입는 것으로 간소화되었다. 통과례복식 가운데 유독 관례복만은 피조사자와 그 후손 모두에서 착용하지 않았다. 이로써 의생활민속은 제작방식과 현대복화(서양복화) 그리고 불이행의 세 가지로 그 변화가 정리된다.

통과례복식 가운데 배넛옷과 수의가 전통방식으로 가장 지속되고 있었다.

수의를 경우 성용희 · 윤하 할머니 경우 시부모의 수의는 직접 제작하였으나 남편의 경우는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수의의 제작시기가 오늘날 윤달이 있는 윤년에 미리 장수를 위하여 준비한 것과 달리 모두 죽음이후에 제작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성용희 · 조남순 · 윤하).

조사 통과례복식의 각 의복어휘 중 눈 없고 코 없는 옷 · 개구멍 바지 · 두렁치 · 실꼭지길이(조남순/배넛옷), 가랑바지(조남순/여자혼례복 속바지류), 후루매(윤하/두루마기), 맹인옷 · 옥매듭(윤하/수의) 등의 지역어휘를 볼 수 있었다.

통과례복식에 의복행위에는 배넛옷과 수의 그리고 상복의 순으로 언급되고 있다. 배넛옷에서는 형제간의 우애(성희용)와 새로 태어난 세상에서 불안감을 없애주는(성희용,조남순,윤하) 아이의 미래(왼손잡이 혹은 오른손잡이)를 예견하는 행위(조남순), 신생아가 옷에 잘 적응하도록 상완을 실로 묶는 행위(성희용)와 홀결인 경우는 외향바느질(정용희)을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의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과 유사

하며(의복제작시 매듭과 뒷 바느질을 하지 않는 것) 상복으로 등걸이·밥상보 등을 제작하여 사용(정용희,윤하)하였다.

## V. 결 언

서울과 가장 밀접한 인접 도시이며 전국에서 가장 넓은 광역시인 동시에 다양한 지리적 환경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공업도시로서의 이미지가 강한 인천은 민속조사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러한 인천에 아직 남아있는 집성촌에서 과거의 전통생활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을 개별 면접(Interview)하여 인천의 전통통과의례복식과 변화를 살펴보았다.

피조사자 노인들은 80대 이후(성희용·조남순)와 60·70(윤하·정용희)대 할머니들이었다. 이들은 아직 조상 대대로 거주하였던 집성촌내 전통가옥에서 전통식생활을 과거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몇 안 되는 전통생활의 체험자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생활은 젊었을 시기와는 달리 대부분의 전통 의생활을 일상복에서는 생활화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중 이미 아파트로 이주하였거나(정용희) 앞으로 이주할 계획(윤하·조남순)의 주생활의 현대화는 개인적인 선호보다는 지역개발에 의한 결과이었다.

피조사자들은 통과의례복식 가운데 관례복을 제외한 배넛옷·혼례복·상복·수의·제복을 전통복식으로 생활화하고 있었으나 일부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가장 적은 변화는 배넛옷과 수의는 오늘날까지 전통방식을 이어가고 있으나 과거에는 직접 제작한 반면 오늘날은 구매에 의존하는 작은 변화만을 볼 수 있었다(이러한 기성복을 구매함으로써 각 집안의 고유한 특색은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복은 시제의 경우는 제복과 도포를 대표만이 착용하고 대다수는 깨끗한 양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극단적인 전통화와 서양복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과 개인의 제사에서는 도포와 유건 등 상징적 요소만으로 간소화되거나 양복으로 서양복화 되었다. 혼례복과 상복은 피조사자 본인들까지는 전통방식을 하였으나 자녀의 경우는 서양복으로 변화되어 혼례복은 웨딩드레스로

상복은 검정 양복으로 대체되었다. 특히 상복의 경우 피조사자들의 부모의 상에는 전통상복을 착용한 반면 남편의 경우는 현대화하여 검정양복을 착용하였다. 이러한 전통통과의례복식 중 배넛옷과 수의에서 전통을 가장 고수는 것은 삶과 죽음에서 새로 태어나는 자와 죽는 자에게 우리의 전통적 정서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 본다. 본 논문은 제한된 지면관계로 기존의 통과의례의 일반성과의 비교보다는 인천지역의 현지조사내용을 중심한 제한을 지닌다.

## 참고문헌

- 1)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1986). *의생활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 2) 인천은 지리적으로 8개구와 2개 군 256개의 읍면동과 44개의 유인도와 144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내지와 바닷가 그리고 섬 지역으로 구분되는 지리적 특성을 지닌다. 여기서 본 연구는 내지의 대상자만을 조사하였다.
- 3) 피조사자는 시아버지 생존시 두루마기를 외출복으로 하였으며 이를 오늘날의 두루마기로 부르지 않고 후루메라 하였다.
- 4) 실꼭지 길이란 까치다리 자세에서 양쪽무릎과 무릎사이라고 조남순할머니가 시언하였다.
- 5) 쓰리퀘터란 1995년부터 군용차량을 개조하여 사용한 승용차를 말한다.
- 6) 깃미령이란 표백하지 않은 무명의 사투리이다.
- 7) 김미자의 3인 (2001). *경기동부의 의생활*. 경기민속지 IV 의생활편. 경기도 박물관, pp.118-167.
- 8) 고부자 (2001). *경기 북부의 의생활*. 경기민속지 IV 의생활편. 경기도 박물관, pp.48-116.
- 9) Ibid.
- 10) 김미자와의 3인 (2001). *Op. cit.* 경기도 남부에서도 두렁이(두랭이)의 착용을 확인할 수 있다.